



# 달맞이골의 소환

5인의 시선이 머문 마을



2021. 05. 24(월)~29(토) | 05. 24(월) 오전 10시(오픈식)

양천문화회관 1층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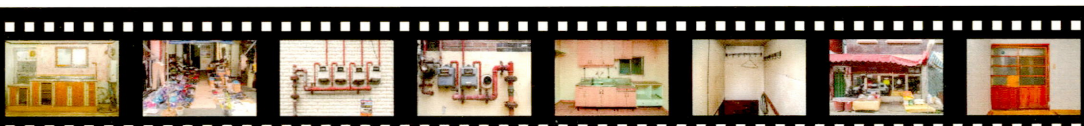


## 신월6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월6동은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정동,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작동과 가까이 있으며, 북쪽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쪽에는 남부 순환로, 동쪽에는 신월로,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여 인천, 광명, 부천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2016년 6월 처음 신월6동 재개발 지역을 촬영하러 갔을 때 대부분의 주택은 비어 있었고,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거주하고 있었다. 2017년에는 건물들이 거의 철거가 완료되어 2020년 3월에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의 합작으로 총 3,045가구 규모의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목동'의 네이밍을 사용한 대단지 아파트로 목동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교육환경과 교통이 편리하여 앞으로 발전 가능한 주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양천아카이브사진연구회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의 뉴타운 개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2016년 이주민들이 남기고 간 흔적부터 2020년 3월 입주 이후 현재까지 이곳의 변화·발전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5인의 시선으로 본 달맞이 골을 소환하여 전시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지도 편달해 주신 강진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기억 속으로 | 김선화

잡초가 무성한 텅 빈 골목  
대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의자  
먼지 앉은 의자엔 잡초가 주인을 대신했다.  
살며시 거울을 의자에 올리고  
그때 그 시절을 잠시 들여다 본다.

주인의 손길이 깃든 의자  
연신 부채를 부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머니  
어스름이 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들어오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고  
하루 일과에 지친 가장은 흐뭇한 냄새를 맡으며 대문을  
들어 선다.

그들에게엔  
행복의 터전이었다!





同地異夢 | 강희숙

꿈과 행복을 찾아 나선다.  
서울 번두리 나지막이 자리 잡은 언덕에  
보름달이 두동실 나의 보금자리를 비춘다.  
네모반듯하게 나누어진 터 위에 집들이  
사이좋게 모여 있다.  
가까운 이웃끼리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꿈을 꾸며 살고 싶다.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다.  
달빛으로 물든 작은 마을 달맞이 굴  
한터에 두 개의 집이 서로 마주 보며 정답게 인사한다.  
서로 다른 대문으로 들어가 따뜻한 이웃과 함께  
동고동락한다.  
넓은 마당이 그리운 반쪽짜리 집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간다.



그리움... 흔적 | 조혜중

고무줄 공기놀이 소꿉장난 술래잡기  
해질녘 엄마의 부름에 후다닥  
살짝 콩 밧 부리고 설레이는 만남  
앞날이 궁금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들고 나고 오랜 시간 같이 한  
정겹던 삶의 터전  
언제 다시 만나 볼 수 있을까  
이젠 다시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골목길 그 집앞



여러해 여러날 헤매이며  
마음에 담고 눈으로 기록해 본다.

이젠 내려 놓아야 할 그것을...



소중함을 담다 | 문정순

누군가의 소중한 것이 담겨 있는 곳  
 처음 시작은 그 집의 문앞이 아니었을까?  
 들어가고 나올때의 표정들  
 그 집의 첫 준공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분들이 행복해했을 모습도 상상해 본다  
 지난 세월의 행복과 슬픔도 담겨 있는 곳  
 이제 허물어져 없어졌지만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소중한 것이 담겨 있는 기억들  
 누군가 그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TV를 바라보며  
 그 소중한 것들을 웃음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신월6동 골목길에서 더운 여름에도 따뜻하게  
 반겨주시던 어른신들의 환한 미소  
 때론 굴러 내려가는 TV를 잡아 주시며 궁금해 하시던 분들  
 퇴근길 찾아 갔던 그 골목에서 느껴지는 사람 냄새  
 소중한 것을 그리워 할 그분들과 나누고 싶다.



함께한 시간 | 송미숙

아카이브 작업을 위해 신월6동을 방문했을 때  
 집과 더불어 남겨진 자잘한 세간살이, 화분, 가구 등등  
 쓰레기 더미에 놓였다.  
 그리고, 우연히 그 속에서 낡은 시계를 발견하고 무수한  
 시간을 건넜을 집들과 연결시켜 보기로 마음 먹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들고 철저히 이용하고 낡아서  
 버려졌지만 남겨진 집들은 마치 아직도 주인과  
 함께한 시간을 붙들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번의 내부촬영 기회에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은 오롯이  
 그 안에서 살 부비고 살던 사람들의 정겨운 추억들이었다.  
 그리고 내 시선속의 집들은 안과 밖 모두 그 곳에  
 머물다 간 사람들의 시간의 흔적을 아직 품고 있었다.

